

“단시조는 시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간직한 시형”

서연정 시조시인, 8번째 작품집 ‘투명하게 서글피’ 펴내 지역 시인들 활동 조영 ‘광주전남시조문학사’ 발간 계획

“작품 속에서 꽃들은 결국 사람으로 화합니다. 시조집을 관통하는 주제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강인한 의지이지요. 달리 말하면 꽃으로 은유한 사람의 강인한 삶을 그리고 싶었죠.”

최근 8번째 작품집 ‘투명하게 서글피’를 펴낸 서연정 시조시인(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회장·사진). 이번 작품집은 단시조로만 이루어진 이색적인 시조집이다.

광주 출신의 서 시인은 1997년 시조단에 얼굴을 내민 이후 30년 가까이 창작을 하고 있다. “등단 20년을 넘기면서 단 시조집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말에서 단시조에 대한 열망이 읽혔다. 시조집 7권을 낼 때까지 단시조집을 펴내지 못했는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지난 2023년 행운이 찾아와” 마침내 작품집을 발간하게 됐다.

서 시인은 1997년 중앙일보 지상시조백일장 연말장원을 비롯해 199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 2023년 제43회 가람시조문학상 수상 등 창작 역량을 인정받았다.

사실 단시조는 시조의 원형이다. ‘단시조야말로 시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시형’이기 때문이다. 시인에 따르면 “현대 상황을 시조로 형상화하는 일이 간단하지가 않아 자꾸 2수 3수로 할 말이 늘어나곤 했다”고 말했다.

이번 단시조집에는 꽃을 모티브로 한 시들이 대부분이다. 고교 때 친구가 평소 ‘사람 일을 쓰지 말고 예쁜 꽃을 모티브로 쓰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사람도 한 떨기 꽃이고 한 줄기 나뭇가지니까” 사람 일을 소재로 한 작품에 전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친구의 말대로 ‘꽃’을 쓰기 시작했다.

작품을 쓸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정형 안에 의도와 느낌을 살리는 것”이라며 “늘어지려는 시의 흐름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이미지를 압축시



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독자는 시조를 딱딱한 네모 창틀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조에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하다. 3장 안에서 유기체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말의 홍수 속에서 시와 시조 길도 점차 늘어나는 시대에 압축미가 주는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꼭 필요한 어휘가 맞춤형에 들어간 작품이 주는 단아한 묘미는 시조의 중요한 미덕이다.

“둥어반복은 효과를 높이기보다 언어를 낭비하

고 혹사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에 비해 시조는 언어를 조심스럽게 가꾸고 팽팽하게 하는 정갈한 맛을 선사하지요.”

그는 작품을 쓰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판다. “광주’를 소재로 쓴 시조가 100편이 넘는데 그만큼 곳곳을 발로 찾아다녔다. 광주문화관광협회, 무등향토문화연구회, 테마문화산책·미로, 광산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10여 년 넘게 했다.

“사실(史實, 事實)이 있다면 시간 속에 묻힌 그 사실 속 인물과 장소를 찾아야만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책상에 앉아 있는 작품은 재미도 별로 없고 성취의 환희도 없다.

오늘의 중견 시조시인으로 도약하기까지 그는 지역의 시인들과 동인활동을 했다. ‘금초문학동인회’, ‘골드클럽’, ‘우리시동인’에서 합평회 중심으로 창작 공부를 했는데 모든 과정이 성장의 ‘대장간’이었다. “당시 제가 가진 쇠붙이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넷’으로 ‘호미’로 ‘삽’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올해 ‘골드클럽’이 시와 시조를 쓰고 토론하는

합평회 모임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그래동시조’라는 동시조 공부 모임도 새로 만들었구요. 공부 모임을 다시 시작하니 ‘등잔에 석유를 가득 부어 놓고 밤을 기다리는 듯’ 매우 즐겁습니다.”

향후 계획은 광주전남시조시인협회 회장 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일순위다. 또한 올해는 ‘광주·전남시조문학사’를 발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광주와 전남(출향 시인 포함) 출신이거나 타지에서 출생했다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시조 활동을 하는 시인들의 활동을 조망해 지역 시조문학사를 갈무리할 계획이다.

“저에게 시조는 인생을 성찰하는 여행이자 세상을 향해 열린 창입니다. 시조를 매개로 시대의 사람, 공간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 말의 울림이 멀리 가는 종소리처럼 공명을 불러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서 시인은 오늘의시조시인회의 젊은시조시인상, 국제PEN광주 올해의 작품상, 광주시문학예술사문학부문장 부문 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먼길’, ‘문과 벽의 시간들’, ‘무엇이 들어 있을까’, ‘동행’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은자 작 '세월'



기경숙 작 '환희'



광주시립오페라단이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를 연습하는 장면.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세월을 담은 바구니 한국화여류화가회, 오늘까지 무등갤러리

여백, 여유, 여흥.

한국화가 주는 미덕이다. 한국적 정신과 미학이 투영된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한 감성을 느끼게 된다.

한국화여류화가회(회장 김은하)가 제26회 전시를 4일까지 예술의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다. ‘세월을 담은 바구니’라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는 전시는 시적인 주제만큼이나 시적인 작품들을 아우른다.

이번 전시는 기경숙, 김금옥, 김은자, 김은하, 김희숙, 김희진, 나연나, 류희남, 박순옥, 박인주,

배교연, 손희숙, 양정숙, 이성임, 이자영, 임경옥, 임정임, 정평남, 조정숙, 차숙자, 최옥순, 최준영, 추순정, 한경자, 홍정남 작가가 출품했다.

제마다의 예술적 심미안과 개성적 운필로 빛어낸 작품들은 은은하면서도 고아한 정취를 발한다.

기경숙 작가의 ‘환희’는 봉긋 피어오르는 봄의 기운을 화폭 가득 담아냈다. 삶의 한 때, 환희로 가득 할 때가 있듯 자연의 풍광 또한 생명의 기운으로 약동하는 시간이 있다. 하늘을 가득 뒤덮은 연분홍 빛꽃의 진향과 물오른 연초록 개나리의 싱싱함이 전해온다.

김은자 작가의 작품 ‘세월’은 전시 주제를 오롯이

반영한다. 여름 신열을 앓듯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했던 산하의 초목들이 불그스름한 단풍으로 물든 모습은 세월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하다. 계곡을 타고 넓은 암반 아래로 흐르는 물의 이미지도 세월이라는 시간에 수렴된다.

김은하 화가는 “항상 그렇듯 이번 전시회도 천천히 뚜벅뚜벅 걸으며 여류화가회 회원 모두가 마음으로 담은 소중한 작품들을 펼쳐 놓았다”며 “그림과 함께 할 때 힘들고 지친 삶도 여유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저승에서 살아온 자’

‘열쭉’ 공연... 7일 광산문화예회관

“쫄꼬오~!” 저승의 시간을 알리는 ‘저승 닭’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망자들의 죄를 가능케 운회와 전생을 결정하는 열라대왕과 저승사자들은 오늘도 심판에 열중이다. 오늘 재판할 망자는 택배기사 ‘김명식’. 그는 택배를 배송하던 중 과로사해 저승에 들어선다. ‘가족’, ‘택배’, ‘고객’, ‘김명식’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로 속행되는 저승 재판은 삶의 의미와 선악, 죽을 이후에 대해 떠올리게 한다.

광산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 열쭉(대표 고창길)가 창작 초연 ‘저승에서 살아온 자’를 오는 7일 오후 5시 광산문화예회관에서 펼친다. 전통타악과 국악, EDM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해 저승을 유쾌하고 재밌는 퍼포먼스로 표현하는 작품이다.

작중 김명식(이태영 분)은 택배를 받아드는 고객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만족감을 느낀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여러 개 배달시키거나 유통기한이 넘은 음식을 권유하는 등 다양한 ‘진상 고객’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하루하루 지쳐가던 그는 어느 날 물건을 문 앞에 가져다 놓고 배달 인증사진을 전송한 뒤, 다시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악행을 저지른다. 그에게 열라대왕(함승우)과 저승사자(황인상 등)들이 내릴 ‘판결’은 무엇일까.

무료 공연. 광산문화예회관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

극단수수파보리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 시련을 겪는 작품 ‘고행’부터 청춘남녀의 애타게 사랑을 그린 ‘찹레꽃’, 기성 오채옥의 수난사를 극화한 ‘화려한 지옥’까지.

1930년대 배경 작품 세 편을 결합한 연극이 탄생했다. 극단 수수파보리(재창작·연출 정안나)가 오는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치는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가 바로 그것.

김말봉(1901-1961)은 1930년대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펼쳤던 작가다. 그의 통속소설은 예술적 가치보다 흥미 위주의 오락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행’, ‘찹레꽃’, ‘화려한 지옥’ 등은 사회상과 예술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연극은 세 작품 서사를 기반으로 동요와 만

요(코믹송), 신민요, 가요 등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진 예정이다. 그 시대 ‘변사’를 오마주한 ‘해설자’는 작품에 접목된 장치다.

2010년 창단한 극단 ‘수수파보리’는 북한이탈청소원,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이름을 알린 남명렬을 비롯해 김말봉 역의 이한희, 김하진, 김정우 배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정안나 연출가는 “1930-1950년대 말까지 30편 넘는 신문소설을 발표했던 김말봉은 문학적 성취에 비해 우리에게 덜 알려진 것이 사실”이라며 “드라마 왕국이라 불리는 현 시점에서 멜로드라마의 원조격인 그를 오마주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고 했다.

전석 1만원(13세 이상 관람 가). 예스24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비극적 아름다움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

광주시립오페라단, 6~7일 광주예술의전당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는 시대를 초월한 음악과 서사로 사랑받는 ‘불멸의 명작’이다. 가수 토스카와 그의 연인 카바라도시를 둘러싼 단 하루의 치정극은 비극적이지만 아름답다. 올해는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라는 점에서 그의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최철)이 제16회 정기공연 ‘토스카’를 오는 6-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

지난해 단막으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던 ‘토스카’는 이번엔 전 3막으로 재구성됐다.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 ‘별은 빛나건만’, ‘오묘한 조화’ 등 하이라이트를 모두 감상할 수 있으며 베리스토 오페라에 정통한 마르첼로 모타렐리가 지휘, 김지영이 연출을 맡았다.

1800년 6월, 경시총감인 스키피아 남작(바리톤, 박정민·고성현)은 토스카(소프라노, 민숙연·김라희)에게 카바라도시(테너, 이시아·윤병길)라는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

진다. 카바라도시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스키피아에게 체포당하고, 스키피아는 토스카를 속이며 처형할 때 공포탄을 쏘아 살려주겠다고 약속한다.

토스카는 스키피아를 죽이고 카바라도시와 함께 도망치려 한다. 그러나 처형장에서 공포탄 대신 실탄을 쏘는 것을 보고 그는 절망해 성벽 아래로 뛰어내린다.

토스카와 카바라도시, 토스카와 스키피아의 이창장 등이 극적 긴장감을 선사한다. 광주시립합창단, 광주CBS어린이합창단, 오케스트라 문화신포니에타 등이 협연할 예정이다.

최철 예술감독은 “비 내리는 세트 등 사실적인 무대를 구성해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던 최고의 ‘토스카’가 될 것”이라며 “내년 7월 개봉하는 변영주 감독의 드라마 ‘사마귀’ 에도 이번 공연 장면 일부가 삽입되는 등 주목받는 작품이다”고 했다.

S석 5만원, A석 3만원 등. 광주예술의전당 및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 참여자 모집

예술의 가치, 현장답사, 스피치 및 저작권 강의.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재단)은 올해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 참여자를 모집한다. (9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

이번 과정은 문화재단 ‘2024 광주예술인복지지원사업’ 가운데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예술에 대한 진로를 탐색하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상자는 예술대학(원)생 또는 예술 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술인에 한정한다. 모집인원은 총 40명이며 공연 예술분야와 시각예술분야 각각 20명씩이다.

교육 과정은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예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입문 강의, 예술 현장의 경험담을 듣는 선배와의 대화(분야별 현장답사 및 특강), 전문성 강화 위한 스피치 강의와 저작권 교육 등이다. 각각 교육은 관련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문가가 강사

로 나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20일, 21일, 27일 3차례)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저녁시간대와 주말 오후 시간대 운영될 예정이다.

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 희망 분야는 개인 전공 분야와 관계없이 선택 가능하다.

노희용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광주예술인아카데미 예비예술인 과정’은 예술에 대한 진로를 탐색 중인 예비예술인들의 진로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예술의 가치를 비롯해 현장 경험담, 그리고 스피치 강의와 저작권 교육 등은 실질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예비예술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참조. 문의 예술누리팀. /박성천 기자 skypark@